

분노의 질주

이타적 유전자

손필영
시인



4월에는 봄빛을 흔드는 개나리, 쫓불 같은 목련, 환상처럼 아련한 벚꽃으로 잠시 마음이 환해졌다. 그러나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처럼 지극히 아름다운 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잎이 떨어지고 다른 꽃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끝없이 지고 핀다. 그러는 사이에 청춘은 노년으로 접어든다.

지난 21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는 불을 낸 당사자가 죽어서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는 상당히 분노에 차 있었던 것 같다. 한때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의 윗집을 방화한 것으로 보아 윗집과 소음 갈등이 원인이었을 거라고 언론은 추측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작년 한 해에만도 3만 건 이상 접수된 층간 소음 문제의 하나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는 불을 윗집 말고도 그 집에서 몇 점 떨어진 집에도 놓았고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빌라 주변에도 놓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았다. 사건 당일 그는 자신의 집 주변에 불을 놓고 오토바이에 기름을 싣고 전에 살던 아파트로 달렸다. 이웃 주민은 인터뷰에서 그가 극심하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그의 정신질환 가능성을 비쳤다. 그러나 그가 정신질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또한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

을 개인의 문제로만 넘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그는 노모를 모시고 살았고 또 노모를 잘 부탁한다는 유서도 남겼다. 그가 살아온 이력은 모르지만 그 나이가 되기까지 그는 특별한 기쁨도 기대도 없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눈앞에 닥치는 일을 해결하고 정치적 혼돈과 불안 속에서 가시밭길을 걷듯이 힘들게 살아왔을 것이다. 그는 보릿고개, 유

신, 12·12 군사반란, 삼청교육대 사건, 광주 5월 항쟁,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청춘을 보냈고 그사이 군 복무도 했을 것이다. 이후 IMF를 겪으면서 중년으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분단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함을 의미한다. 그보다 40여 년 전에 태어나 6·25와 4·19를 겪고 마포 강변에서 양계를 했던 시인 김수영은 이 땅에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임을 시로 표현했었다. 특히 자화상을 그린 듯한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 그는 살아내기 위해 정정당당한 일에는 반항하지 못하고 아주 적은 돈 때문에 반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슬퍼했다.

(전략)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늬의 투정에 진다/떨어지는 은행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중략)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바람아 먼지가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정말 얼마큼 적으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노인 연령 상향을 통해 사회적 부

담을 줄이고,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노인 일자리 마련을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8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회원국 38개국 중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10위인데, 복지지출은 뒤에서 다섯 번째로 경제 수준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취업률 1위와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이 들어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설상가상으로 노인 자살률 1위까지 더해진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뜻을 받든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는 말을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한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주인으로서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가? 전 국민의 20%가 노인인 나라에서 대선을 앞두고 많은 공약들이 발표될 것인데, 후보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국민을 존중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양심에 물어봐야 할 것이다.

코끼리 아저씨의 새로운 시대

전일광장

정상연

문화학 박사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잎 타고 태평양 건너 갈 때에, 고래아가씨 코끼리 아저씨 보고 첫눈에 반해 스리슬쩍 윈크했대요. 나는 육지 멧쟁이 당신은 바다 이쁜이 천생연분 결혼합시다.” 이 노래는 ‘독도는 우리 땅’을 불렀던 정광태(1955~)씨가 1982년에 발표한 ‘코끼리 아저씨’라는 동요이다.

생각만으로도 유쾌한 동심을 자아낸다. 육지와 바다를 넘나드는 스토리와 코끼리 아저씨와 고래 아가씨라는 독특한

캐릭터의 만남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완벽한 소재인 듯하다. 노랫말에 담긴 대답하고도 귀여운 사랑 이야기는 누구나 미소를 짓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

하지만 동화나 동요에서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아니 어떤 상상력이 뛰어난 소설에서도 다루기 힘든, 일어나서는 안 될 충격적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찌되었는가? 대한민국의 지난 몇 개월은 보통의 상식과 가치를 뛰어넘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탄핵이 결정되기까지의 처절함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시간이었다. 더 나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간절함과 연대는 헌법과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이었고, 개인이나 정치

인에 대한 불신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희생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대와 공간을 넘나드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 활동은 희망의 빛을 발휘했고, 시위 참여자들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그룹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 등을 한 목소리로 폐창하며 에너지를 모았던 것을 비롯해 다양한 구호와 기발하고도 재미난 깃발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K팝 팬들 사이에서 사용 돼왔던 각양각색,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어둠을 뚫고 춤을 추는 모습들은 공동체 의식과 단결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되었다. 이름 하여 ‘소원봉’이다. 희망과 염원의 표상이다. 이는 문화적 저항과 사회적

메시지 전달의 특별한 도구가 되었으며 시위의 새로운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또한 SNS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활동은 세대 간 상호작용과 연대의 요소로 역할을 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 결속력을 단단하게 다지는 기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저항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 치유와 성찰을 유도하는 매개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정치적 이념과 분열이 심화되었던 때에 함께 구호를 외치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집단적 결속을 다지는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다.

거기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 데 모여 새로운 사회적 다양성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각자의 예술적 표현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존하는 민주사

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지역을 넘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증명한 것이다. 다양성의 가치는 단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조화로운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되새기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건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일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우리가 있을 것이다. “예식장은 용궁 예식장 주례는 문어아저씨, 피아노는 오징어 폐물은 조개껍데기” 이처럼 동심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대한민국을 상상해본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변화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와 이에 따른 계획들을 차분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